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추상표현주의의 잭슨 폴록 작품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제작

2017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최 민 주

추상표현주의의 잭슨 폴록 작품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제작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최 민 주

인 준 서

최민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미용분야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통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바디아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급부상하는 조형예술의 하나로서 상업 예술로 까지 발전하여 퍼포먼스, 광고 등 여러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바디아트는 다양한 주제와 기법을 응용하여 창의적인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작품들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다양한 분야와의 접촉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더욱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으면서 예술적 풍부함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잭슨 폴록 작품 6점을 모티브로 선정하여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우연성, 평면성, 무의식성으로 분류하고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함에 있어 작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디아트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였다.

작품 I은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우연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다섯 길 깊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시각적 무게감을 주면서 음산함 분위기의 느낌을 주고 간결한 형태와 전체성과 통합성을 상징하는 회화를 나타내었다.

작품 II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우연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넘버 32, 1950>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불연속, 불규칙적인 선의 형태를 반복하여 신체에 나타내고 분해하고 해체시켜 과장하여 늘리고 단조롭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동적인 리듬감 같은 선을 그어 더욱 상징적 형태를 돋보이게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평면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불연속, 불규

칙적인 선의 형태를 반복하여 신체에 나타내고 분해하고 해체시켜 과장하여 늘리고 단조롭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동적인 리듬감 같은 선을 그어 더욱 상징적 형태를 돋보이게 표현하였다.

작품 IV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평면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불꽃>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작품 속의 붓질 하나하나 그대로에 강렬함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꽃처럼 담아내었다.

작품 V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무의식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달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비선형적 선의 구성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나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변화에서 오는 피카소 적인 분해와 형태들을 표현해 나갔다.

작품 VI은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무의식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속기술의 인물 형상>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폭발적이고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특징의 작품 속에 신화적이고 원시적인 모티브로 자유롭고 표현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바디아트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작품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하게 됨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 바디아트 분야의 예술성과 표현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추상표현주의	3
1) 추상표현주의의 개념	3
2)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5
2. 잭슨 폴록	15
1) 잭슨 폴록의 생애	15
2) 잭슨 폴록 작품에 나타난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17
3. 바디아트	25
1) 바디아트의 개념	25
2) 바디아트의 표현기법	26
III. 작품제작	32
1. 작품 제작의도 및 디자인 계획	32
2. 작품 제작	35
1) 작품 I	35
2) 작품 II	39
3) 작품 III	43
4) 작품 IV	47

5) 작품 V	51
6) 작품 VI	55
IV. 결론	59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추상표현주의 특성에 따른 선행연구	7
<표 2> 디자인 계획	34
<표 3> 작품 I - 디자인 계획	37
<표 4> 작품 II - 디자인 계획	41
<표 5> 작품 III - 디자인 계획	45
<표 6> 작품 IV - 디자인 계획	49
<표 7> 작품 V - 디자인 계획	53
<표 8> 작품 VI - 디자인 계획	57

그림 목 차

<그림 1> <summer #1>, 1957, Sam Francis	13
<그림 2> <급격한 부활>, 1950, Henri Michaux	13
<그림 3> <아담>, 1951~1952, Barnett Newman	13
<그림 4> <Automatic Drawing>, 1924, Andre Masson	13
<그림 5> <도시의 구성>, 2008, 김기남	14
<그림 6> <Myth of Cube>, 2007, 김재관	14
<그림 7> <다섯 길 깊이>, 1947, Jackson Pollock	19
<그림 8> <넘버 1A, 1948>, 1948, Jackson Pollock	19
<그림 9> <넘버 32, 1950>, 1950, Jackson Pollock	19
<그림 10> <넘버 1, 1950(라벤더 안개)>, 1950, Jackson Pollock	19
<그림 11> <벽화>, 1943~1944, Jackson Pollock, Jackson Pollock	22
<그림 12>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 1946, Jackson Pollock	22
<그림 13> <불꽃>, 1934~1938, Jackson Pollock	22
<그림 14> <열기 속의 눈>, 1946, Jackson Pollock	22
<그림 15> <비밀의 수호자들>, 1943, Jackson Pollock	24
<그림 16> Jackson Pollock <달의 여인>, 1942, Jackson Pollock	24
<그림 17> Jackson Pollock <남자와 여자>, 1942, Jackson Pollock	24
<그림 18> <속기술의 인물 형상>, 1942, Jackson Pollock	24
<그림 19> 회화적 기법	30
<그림 20> 에어 브러시 기법	30
<그림 21> UV 발광 기법	30
<그림 22> 액션 페인팅 기법	30

<그림 23> 오브제 기법	31
<그림 24> 디지털 표현 기법	31
<그림 25> 작품 I	38
<그림 26> 작품 II	42
<그림 27> 작품 III	46
<그림 28> 작품 IV	50
<그림 29> 작품 V	54
<그림 30> 작품 VI	58

I. 서론

추상표현주의자들은 매우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추상표현주의가 갖는 형식적 특징, 표현적 특징, 추상적인 특징이 작가마다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¹⁾ 특히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은 액션페인팅이라는 새로운 화법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히게 되었으며, 회화의 순수성에 중점을 둔 액션페인팅을 전개하여 자신의 주관적 감정 표출과 회화의 자율성을 극대화했다.²⁾

잭슨 폴록은 미국 추상표현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진취적인 정신과 힘을 더하여 발전하게 되었고 오늘날 현대회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잭슨 폴록이 제작하였던 작품을 모티브로 삼아 추상표현주의가 가지는 특성을 접목하여 다양한 시도의 구축으로 바디아트 작품으로 재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의 바디아트는 작가의 자발성과 독창성에 재료의 질감이 결합된 자유로운 표현방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몸에 이미지화 또는 형상화시켜 재구성하였으며, 바디아트를 활용한 작품 제작은 다양한 연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³⁾

이에 본 연구는 내용과 방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상표현주의와 잭슨 폴록에 대하여 고찰하고, 추상표현주의에 나타나는 특성을 도출하여 잭슨 폴록 작품과 접목시켜 바디아트로 제작하고자 한다.

1) 권선정(2004). “추상표현주의 액션 페인팅의 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2) 김형자(2005).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있어서 자연 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3) 배기혜(2009).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작품제작을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잭슨 폴록 작품에서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우연성, 평면성, 무의식성으로 분류하고, 우연성을 상징하는 작품 2점, 평면성을 상징하는 작품 2점, 무의식성을 상징하는 작품 2점까지 총 6점의 작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선정된 6점에서 잭슨 폴록의 작품의 일부를 모티브로 삼아 재해석하여 다양한 표현기법에 예술로서의 바디아트 영역을 확대하고 발전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추상표현주의

1) 추상표현주의의 개념

추상표현주의(Abstrac Expressionism)는 뉴욕 비평가 로버트 코츠(Robert Coates, 1897~1973)가 한스 호프만(Hans Hofmann, 1880~1966)의 전시회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미국은 반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의미로 가득 찬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⁴⁾

개척정신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렬한 미국적 체험을 시각화한 것이며 넓게는 형태에서 벗어나 역동성을 추구하는 추상미술의 한 사상을 이른다.⁵⁾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미술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고 이 새로운 미술은 뉴욕파의 첫 세대들이 표현주의를 추상으로 성취하였으며 이전의 순수 추상과 대비해 형식은 추상적이거나 내용은 표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추상표현주의라고 불리게 되었다.⁶⁾

포괄적으로 유럽에서는 표현적 추상인 ‘앵포르멜(Informel)’⁷⁾운동을 포함하며 더 넓게는 표현적인 느낌을 주는 추상 모두가 추상표현주의에 해당된다.⁸⁾

4) 데브라 브리커 발렌, 정무정역(2006). “추상표현주의”, 파주: 열화당, p.7.

5) 김광우(1997). “폴록과 친구들”, 서울: 미술문화, p.6.

6) 김정미(2010). “추상표현주의에 내재된 욕망의 무의식적 표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7) 앵포르멜(Informel): ‘부정형인 것’이란 뜻. 2차대전 후에 나타난 추상회화의 한 경향. 실존주의와 정신 풍토가 같으며 액션 페인팅과 시대를 공유하는 운동으로서 기존의 미학을 폐기하고 동력학, 위상기하학, 집합론적 극미와 극대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별개의 예술’을 창조하려고 하였다.
네이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2454&cid=42635&categoryId=42635> (검색일: 2016. 09. 10.)

추상표현주의는 1951년 파리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로는 잭슨 폴록과 윌렘 데 쿨닝(Willem De Cooning, 1904~1997)이 참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화가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적인 추상표현주의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⁹⁾

미국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우연성을 개입시키는 활동적인 제스처에 의한 표현법과 단색의 단조로운 형태로 색면공간을 통해 추상적인 암시나 상징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색면추상 같은 회화 경향이 있다.¹⁰⁾ 작가들은 이 두 가지 경향을 사용하여 표현적 이미지 측면뿐만 아니라 기법이나 태도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¹¹⁾ 화면의 물질성을 중시하고 조형방법 그 자체보다는 형상의 모든 체계를 포괄하여 어떤 기존 관념도 이탈한 창조의 근원적 행위를 중시하는데서 발견되어지는 예술가의 정신이다.¹²⁾

2)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추상표현주의는 추상회화의 한 양식으로서 1940~1950년대 미국 추상회화를 가리킨다. 이 회화는 무의식성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¹³⁾을 적용하여 구상회화나 전통적인 추상예술이 갖는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형상성을 초월하고자 하였는데¹⁴⁾ 외적 혼돈에서 오는 내면의 불안함을 예술적으

8) 김현화(1999). "20세기 미술사", 서울: 한길 아트, p.201.

9) 권선정(2004). op.cit., p.14.

10) 김영순(2003). "콜라주와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

11) 데이비드 파이퍼, 강민기역(1995). "미술사의 이해:3", 서울: 시공사, p.679.

12) 김현묘(2009).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나타난 표현기법을 응용한 패션트렌스 아이템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13) 자동기술법(Automatisme): 무의식적 자동작용을 말한다. 의식이나 의도가 없이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적 상태로 대할 때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이미지의 분류를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네이버: <http://m.termsofnaver.com/entry.nhn?docid=940090&cid=47319&categoryid=47319> (검색일: 2016. 09. 12.)

14) 한정희(2004). "회화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로 승화시킨 것에 의의가 있으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본능적으로 무의식중에 표출하는 행위로 작가가 표현하고자하는 욕구와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독자적인 방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¹⁵⁾

본 연구에서는 회화에서 작품이란 대상과 작가의 표현의지가 화면에서 표출되도록 표현하고자 한다.

추상표현주의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선정(2004)¹⁶⁾은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우연성으로 분류하고 표현방법으로는 오토마티즘을 활용하여 오토마티즘에 따른 우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연에 의한 현상은 스스로 결합, 해체, 구성, 제시 등 하나의 완성된 새로운 조형 이미지로서 자율적으로 구축됨을 연구하였다.

백미숙(2006)¹⁷⁾은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무의식성, 평면성, 공간성, 시간성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표현방법으로는 액션페인팅의 무의식의 표출이면서 회화의 자유로운 오토마티즘, 그려진 화면의 특정한 초점 또는 중심부가 없이 화면 전체가 고무 평등한 평면으로 처리되는 올 오버 페인팅, 그림 물감을 캔버스 위에 떨어뜨리거나 붓는 드리핑 기법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최희영(2008)¹⁸⁾은 무의식성을 강조한 오토마티즘의 영향을 받은 추상표현주의의 작가들은 액션페인팅이라는 표현적 추상으로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무의식성, 평면성, 우연성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표현방법으로는 오토마티즘, 올 오버 페인팅, 드리핑 기법 분류하여 회화에 나타나는 순수성과 그 본질에 대해 연구하였다.

김현표(2009)¹⁹⁾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평면성과 공간성 두 가지로 분

15) 박고은(2008). "추상표현주의의 우연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16) 권선정(2004). op.cit., pp.27-30.

17) 백미숙(2006). "추상표현주의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30.

18) 최희영(2004). "액션페인팅에 나타난 우연적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21.

류하였고 표현방법으로는 드리핑 기법과 불규칙한 색점과 얼룩들로 표현된 타시즘²⁰⁾기법으로 분류하였으며 회화를 텍스타일 디자인에 응용하여 연구하였다.

김정미(2010)²¹⁾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공간성으로 분류하였고, 표현방법으로는 올 오버 페인팅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공간창출을 연구하였다.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연성, 평면성, 무의식성, 공간성, 시간성으로 다섯 가지 특성을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분류하였다.

19) 김현묘(2009). op.cit., pp.3-7.

20) 타시즘(Tachisme): '얼룩', '오점'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의 타슈에서 온 말이며, 1950년대 초의 추상 표현주의적 경향의 그림을 피에르 게강(Pierre Gueguen)이 조소적으로 형용한 것이 통용어가 되었다.
네이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4314&cid=42635&categoryId=42635> (검색일: 2016. 09. 13.)

21) 김정미(2010). op.cit., pp.50-54.

<표 1> 추상표현주의 특성에 따른 선행연구

선행연구자	특 성	표 현 요 소	표현특성
백미숙 (2006)	무의식성 평면성 공간성 시간성	오토마티즘 올 오버 페인팅 드리핑	우연성 평면성 무의식성 공간성 시간성
권선정 (2004)	우연성	오토마티즘	
최희영 (2008)	우연성 평면성	드리핑 올 오버 페인팅	
김현모 (2009)	무의식성 평면성 공간성	오토마티즘 드리핑 타시즘	
김정미 (2010)	공간성	올 오버 페인팅	

(1) 우연성

추상적 회화로 표현함에 있어서 우연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는데 미술사적으로 다다와 초현실주의에 거쳐 추상표현주의 회화에서는 작품에 보여지는 의도성이 개입된 우연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²²⁾ 또한 예상 밖의 비규정적 특성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사물의 발전·변화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또는 저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가르킨다.²³⁾

사물 발전과정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필연성은 우연성에 포함되며 우연 중에 필연이 있고²⁴⁾ 우연과 필연의 관계에 대한 탐색은 미술사조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으며 우연성 자체를 예술의 한 과정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다.²⁵⁾

우연적인 요소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추상표현주의의 <그림 1>과 같은 드립핑이나 <그림 2>와 같이 프랜시스 타시즘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작가들은 직관을 작품제작의 기본적인 태도로 내세웠으며, 인간의 의지에 따라 손으로 써 그린다는 전통적인 조형의식을 탈피하였다.²⁶⁾

추상표현주의의 우연은 의도성 있는 계획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직관의 표현으로 화면에 의도하지 않은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며 내면세계에서 우연히 표현되어진 이미지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작가들에 의해 나타났다.²⁷⁾

예술에 있어서는 합리주의에서 비합리주의로 이행하는 현대의 철학적 관념과 맥을 같이 하고, 예술에 있어서의 우연성 활용은 오늘날까지 예술 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²⁸⁾

22) 이보라(2005). “현대 미술에 있어서 우연성 표현 방법에 대한 조형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23) 유가월(2016). “우연성의 재해석을 통한 자아탐색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24) Ibid.

25) 매슈게일, 오진경역(1998). “다다와 초현실주의”, 서울: 한길아트, p.47.

26) 안지현(2003). “우연성을 활용한 텍스처어와 추상형태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17.

27) 최혜인(2005). “현대회화의 우연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

(2) 평면성

추상표현주의에 있어 평면성은 색채와 형상이 평면이라는 여건에 최대한 충실한 이미지가 2차원 표면 하나로 합쳐져서 완성된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²⁹⁾ 이렇게 함축시키고 신속히 압축된 상태로써 평면위에 최단순의 구조를 가지는 특징을 띄며, 이 구조는 화면안의 선, 형태, 윤곽, 색채 등 모두에 적용되며 새로운 평면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³⁰⁾

그래서 평면 위의 단순성이 가지는 이미지의 모호함은 같은 이미지에 대한 여러가지 관독과 이해를 유발시키는 매력을 지닌다.³¹⁾

그린 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모더니즘 논의의 핵심이자 현대회화의 발전과정을 주도한 것은 평면성이라고 주장하였다.³²⁾

지난날의 거장들은 고전적 3차원 사실주의자들이 ‘공간의 환영’을 만들어 그림들을 보면 3차원적인 느낌이 생겨 늘 비난하곤 했는데 그림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나 평면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³³⁾

평면성 회화는 색면회화의 평면 환원경향은 평면의 완전한 일치로 시도되었고 색면과는 대칭을 이루는 형태의 배치나 강조점이 없이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격자무늬 조직, 혹은 <그림 3>과 같이 단색화로 형성되어있다.³⁴⁾

추상표현주의의 자발적인 즉흥성과 거친 붓 흔적이 남는 화면에 대한 반응으로³⁵⁾ 나타났으며, 미술계에서 표현과 현상의 모방과 변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지속이 된다.³⁶⁾

28) 안지현(2003). op.cit., p.17.

29) 최희정(2000). “*Graphic design*에서의 평면성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30) 에른스트 고프리치, 백기수역(1985), “*예술과 환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539.

31) 최희정(2000). op.cit., p.5.

32) 최희정(2012). “*뫼비우스 상으로 고찰한 20세기 이후 평면성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33) 톰 울프, 박순철역(2003). “*현대미술의 상상*”, 서울: 아트북스, p.81.

34) 이미영(2000). “*평면적 이미지를 통한 회화공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35) Ibid.

36) 최희정(2012). op.cit., p.19.

(3) 무의식성

무의식성이 갖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무의식의 표출이면서 회화의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자 했고, 작가의 감정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자유로운 상상력과 조형적 사고 이전에 무의식의 표출로서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창작에너지로 표현된다.³⁷⁾ 이것은 기존의 미술에서 한계를 탈피하려는 곳에서 출발하며, 한계를 탈피하려는 개념에 있어서 행위는 그 자체로 등장하여 회화, 조각 등 기존의 장르를 넘어선 종합 예술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³⁸⁾

추상표현주의가 무의식에 있어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려가는 과정에서 <그림 4>와 같이 얻어지는 선과 형태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³⁹⁾

무의식은 순수하고 자발적인 상을 형상화하여 무의식의 정신적 표상을 표현하며 창조의 근원점이며 에너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⁴⁰⁾ 인간 내면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표현 방법으로 문학이나 회화에 있어서 상상력의 원천으로 의식의 영역을 넓혔고, 이는 예술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⁴¹⁾

(4) 공간성

공간 개념은 예술 전반에 계속 존재해 왔고 공간은 각 시대의 세계관이 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다르게 해석되어 왔으며 철학과 자연과학,

37) 백미숙(2006). op.cit., p.23.

38) 민병우(2004). “추상표현주의 미술에 기초한 스크래칭 애니메이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39) 박자영(2004). “미국 추상표현주의 오토마티즘의 제 경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40) 백미숙(2006). op.cit., p.23.

41) 최희영(2004). op.cit., p.14.

미학 등의 여러 영역에서 논의되어 미술에서 공간의 문제는 철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⁴²⁾

회화에 있어 화가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지각으로 인해 회화의 세계를 무한하게 만들며 <그림 5>와 같이 회화 공간은 화가가 선, 형, 색채 등을 시각적으로 다루는 결과로서 이차원적 매개물의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⁴³⁾ 순수한 조형요소인 점, 선, 면, 색채 등에 의해 표현되며 구체적 대상이나 시각적인 형태의 재현을 포기하며 독특한 형상과 이미지로서 시각 언어를 창조하며 평면과의 교감을 보여준다.⁴⁴⁾

공간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공간이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영역 또는 어떤 물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퍼져 있는 범위라고 정의된다.⁴⁵⁾

기본적으로 공간은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인지하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며 공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그들의 시각 세계를 심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⁴⁶⁾

(5) 시간성

회화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역사적 시간과는 구별되는데 사물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추진자로서의 시간은 구체적 시간이며 유기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⁴⁷⁾

공간지각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기억이나 연상작용

42) 박혜정(2011). “알베르토 자코메티 작품의 공간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43) 루돌프 아르하임, 김춘일역(2003). “미술과 시지각”, 서울: 홍성사, p.366

44) 강남구(1994). “추상회화에 나타난 공간성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

45) 최동신, 최호천(2006). “입체, 공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안그라픽스, p.44.

46) 박혜정(2011). op.cit., p.40.

47) 김명숙(2003). “흔적의 재현을 통한 회화의 시간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을 일으키는 장면을 구성해가는 것을 말하며⁴⁸⁾ 20세기 이후부터는 움직임을 회화나 조각, 다양한 현대미술의 분야에 적용하였고 과거와 달리 매우 파편화되었으며 일관된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데, 이는 현대에 들어와 새롭게 인식된 시간개념 때문이다.⁴⁹⁾

미술에서는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회화에서 드러나는 시간성의 변화에 대해 20세기 회화에서 이미지의 변용과 복원은 시간개념의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⁵⁰⁾ (그림 6)

48) 김수락(2016). “시간성 표현방법을 적용한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계획안”,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49) 김지은(2015). “시간성을 통한 현상의 표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50) 하상희(2014). “중첩구조로 표현된 이중적 시간의 시각화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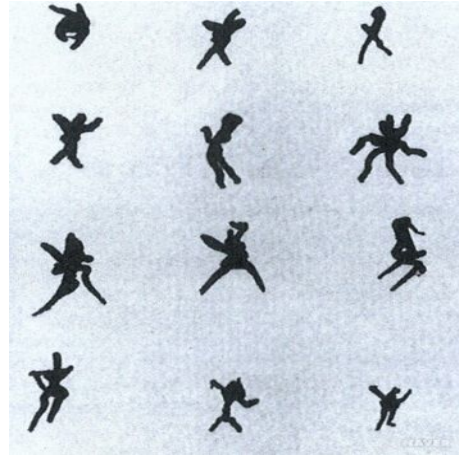


< 그림 1 > summer #1, 1957

Sam Francis

(출처:<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173547&memberNo=4270789&vType=VERTICAL>)

(검색일:2016. 0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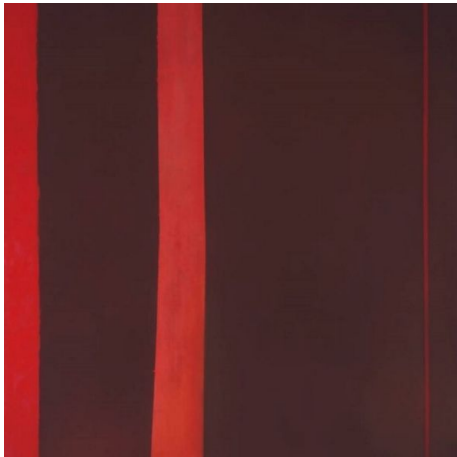


< 그림 2 > 급격한 부활, 1950

Henri Michaux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4314&cid=42635&categoryId=42635>)

(검색일:2016. 09. 14.)



< 그림 3 > 아담, 1951-1952

Barnett Newman

(출처:테브라 브리커 발켄, 정부정역, 2006, p.57.)

(검색일:2016. 0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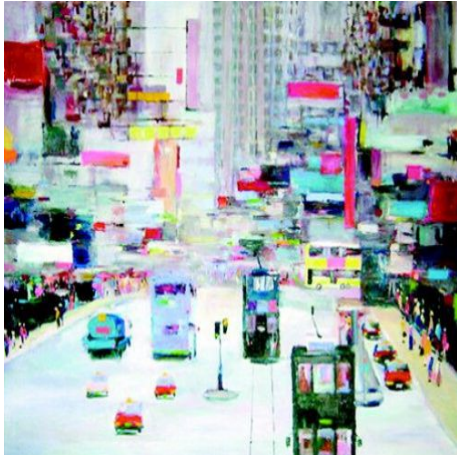


< 그림 4 > Automatic Drawing, 1924

Andre Masson

(출처:<http://cafe.naver.com/soorisam/1051>)

(검색일:2016. 0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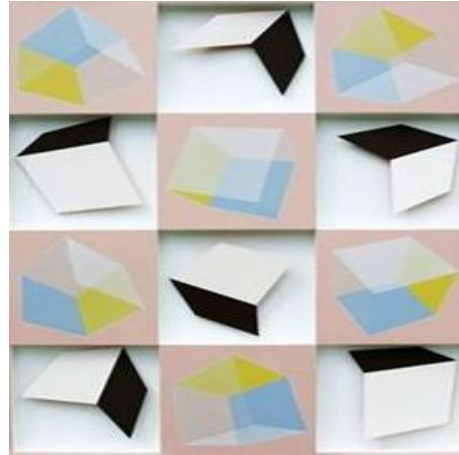


< 그림 5 > 도시의 구성, 2008

김기남

(출처:<http://m.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670>)

(검색일:2016. 09. 18.)



< 그림 6 > Myth of Cube, 2007

김재관

(출처:<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0813442527526>)

(검색일:2016. 09. 18.)

2. 잭슨 폴록

1) 잭슨 폴록의 생애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은 1912년 미국 와이오밍주의 코디에서 태어났으며, 폴록은 1928년 로스앤젤레스의 매뉴얼 미술고등학교에 입학하여⁵¹⁾ 만난 세인트 쉬안코프스키 교사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독창성 강조와 의식을 확대하는 방법과 함께 책이나 사상 등을 폭넓게 알게 되었다.⁵²⁾ 그 후에는 형과 같이 뉴욕으로 건너가 아트 스트리그에서 토마스 벤튼의 미술 수업을 받게 되는데 당시 비유럽적인 공간이나 인디언 문화와 친하고 있던 폴록은 미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지방주의에 영향을 받게 된다.⁵³⁾

자신만의 대표적인 기법이 된 액션페인팅을 사용한 것은 1940년대 후반부터 였는데 그는 단순히 새로운 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종래의 회화 개념을 벗어나는 새로운 회화를 창안한 것이었다.⁵⁴⁾ 작품을 할 때 캔버스를 이젤이나 벽에 걸지 않고 바닥에 놓은 뒤 공업용 애나멜이나 상업용 페인트를 가지고 뿌리고 흘리는 기법과 마른 붓, 막대기, 작은 삽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림을 작업했으며⁵⁵⁾ 서양의 화가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제공한 작가의 전형적 움직임이랑 다른 작품들을 제작했다.⁵⁶⁾

이 방법은 손으로 그린다는 오랜 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며 통속에서 직

51) 네이버: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58661&cid=40942&categoryId=34393> (검색일: 2016. 9. 20.)

52) 후지에다 데루오, 박용숙역(1985). “잭슨 폴록”, 서울: 열화당, p.81.

53) 이지현(2004).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54) 김형자(2005).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있어서 자연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10.

55) 이지현(2004), op.cit., pp.19-20.

56) 캐럴라인 랜즈너, 고성도역(2014). “잭슨 폴록”,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p.74.

접 흘러내리는 물감, 이른바 드리핑의 방법은 붓에 의한 묘사를 벗어난 우연적인 성질의 방법에 치부되어지며 그것이 우연적인 한, 자동적인 것에 다름 아니기도 한 것이다.⁵⁷⁾ 폴록이 물감 뿌리는 자세도 결코 우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그런 현상을 의도적인 우연이라 부른다.⁵⁸⁾

고독한 인물이었던 폴록은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밖에 어떤 식으로든 예술가 그룹에 가담하지 않았다.⁵⁹⁾ 그는 끊임없이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면서도 작업에 대한 열정과 고민을 놓지 않았으며 독특한 회화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자신과의 싸움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폴록은 1956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지만 미국 화가들 가운데 최초로 당대에 유럽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20세기 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작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⁶¹⁾

2) 잭슨 폴록 작품에 나타난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잭슨 폴록 작품은 초기에는 이미지의 단편들이 보여주는 어둡고도 강렬한 색채로 되어있는데 1930년부터 1938년까지 토마스 벤튼(Thomas Benton, 1889~1974)과 알버트 라이더(Albert Ryder, 1847~1946)는 멕시코 벽화운동과 공공사업진흥국인 WPA의 사회적 미술의 영향을 받았으며⁶²⁾ 이후 1938년부터 1946년까지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자동기술적 환상, 인디언의 토템의 이미지 등에 영향을 받아 단서들을 끌어 모아서 암시적이고 독창적인 어휘를 창조하였고 이러한 형태들을 가지고 입체주의

57) 이순옥(2006). “잭슨 폴록과 본인 작품의 추상표현주의적인 회화의 고찰”,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58) 권선정(2004). op.cit., p.31. (수잔나 파르취, 1999, 재인용)

59) 찰스 해리슨, 이영철역(1988). “추상표현주의”, 서울: 열화당, p.23.

60) 이지현(2007). “잭슨 폴록 회화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17.

61) 캐럴라인 랜즈너, 고성도역(2014). op.cit., p.74.

62) 이지현(2007). op.cit., p.23.

의 공간을 비틀어 그 공간으로 하여금 폴록 자신처럼 격렬하게 발언하도록 만들었다.⁶³⁾

자신만의 표출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특유의 회화적 기질로 자리 잡아 나갔으며 이후 형태를 해체시키면서 알 수 없는 이미지에 이르고 그의 예술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특이한 차원의 형식으로 변모해 갔다.⁶⁴⁾

본 연구에서는 추상표현주의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연성, 평면성, 무의식성, 공간성, 시간성 등 다섯 가지 특성 중 잭슨 폴록 작품에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우연성, 평면성, 무의식성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잭슨 폴록 작품에 나타난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우연성

우연성이 갖든 드리핑을 사용하여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잭슨 폴록이 이 방법으로 새로운 회화스타일을 창조했던 1940년대부터이다. 폴록의 회화는 전면 회화라 할 수 있는데 상하좌우 구별 없이 화면 전체가 고루 균등한 평면으로 처리되고 있는 회화를 말한다.⁶⁵⁾ 잭슨 폴록 작품은 대표적으로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우연성이 잘 나타나 있다.⁶⁶⁾

폴록이 1947년에 그린 <그림 7>의 <다섯 길 깊이>에서는 아직 형상이 남아 있는 흔적도 보이지만 이전의 붓으로 칠했던 터치들은 드리핑 기법의 선들로 바뀌어져 있고 서로 뒤엉켜 우연성을 능가하는 선들 또한 긴장감을 주며,⁶⁷⁾ 본격적으로 드리핑을 시작한 때는 1943년 무렵인데 <넘버 1A, 1948>을 제작하면서 캔버스와 뿔뿔이 부서져 테두리로 분출되다가 가운데로 다시 후퇴하며 흐느적거리는 선으로 된 문양으로 표면을 채웠고, 캔버스 위에

63) 후지에다 데루오, 박용숙역(1985). op.cit., p.84.

64) 이지현(2007). op.cit., p.24.

65) 김현묘(2009). op.cit., p.6.

66) 최혜인(2005). op.cit., p.17.

67) 최희영(2004). op.cit., p.15.

서 선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여유 공간을 만들어 냈다.⁶⁸⁾ (그림 8)

붓거나 흘리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물감을 다루기 시작한 지 3년째에 <넘버 32, 1950>와 <넘버 1, 1950(라벤더 안개)>등 에는 재료를 다루는 숙련된 솜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⁶⁹⁾ (그림 9), (그림 10)

기법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광범위하게 탐색한 다양한 작품은 폴록이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였지만 점차 속도가 빨라졌고 나중에는 마치 춤을 추듯 돌아다니다가 물감을 캔버스에 뿌렸다.⁷⁰⁾

그림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상징적 이미지주의를 버리고 우연성에 의한 방법으로 순수한 추상을 한 것은 추상미술의 미학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 발견을 위한 실존경험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¹⁾

68) 캐럴라인 렌츠너, 고성도역(2014). op.cit., p.48.

69) 최희영(2004). op.cit., p.20.

70) 캐럴라인 렌츠너, 고성도역(2014). op.cit., p.57

71) 김난경(1993). “추상표현주의 회화기법을 통한 본인작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1



< 그림 7 > 다섯 길 깊이, 1947

Jackson Pollock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58155&mobile&cid=46720&categoryId=46867>)

(검색일:2016. 09. 22.)



< 그림 8 > 넘버 1A, 1948, 1948

Jackson Pollock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58157&cid=46720&categoryId=46867&mobile>)

(검색일:2016. 09. 22.)



< 그림 9 > 넘버 32, 1950, 1950

Jackson Pollock

(출처:캐럴라인 렌즈너, 고성도역, 2014, p.59.)

(검색일:2016. 09. 24.)



< 그림 10 > 넘버 1, 1950(라벤더 안개), 1950

Jackson Pollock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810&mobile&cid=46720&categoryId=46867>)

(검색일:2016. 09. 25.)

(2) 평면성

잭슨 폴록은 우연적인 드리핑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1948년에서 1951년 사이에 올 오버 페인팅 기법을 사용하여 평면성의 특성이 살아있는 작품을 제작하였다.⁷²⁾

페기 구겐하임(Marguerite Guggenheim, 1898~1979)이 폴록에게 집 현관의 그림을 부탁하였고 그 그림은 <벽화>이다. 폴록은 그리는 동작 그 자체를 일치시키고 형태속에 짝 찬 닫힌 형태를 거부하고 열린 상태의 작품을 의미한다.⁷³⁾(그림 11)

<벽화>는 붓과 막대기를 함께 사용하여 내려댄 것 같은 검은선의 소용돌이치는 형태들로 그림 전체를 구성하는 올 오버 방법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 선이 그리는 동작이 일치하며 형태 속에 짝 차 화면에서의 닫힌 느낌이 사라지고 있다.⁷⁴⁾

올 오버 페인팅에 있어서는 색채적인 면을 살펴보면 색채를 선이라는 주요소에게 양보하여 화면을 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였는데⁷⁵⁾ 그 두 점의 뛰어난 회화 중 하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작품인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과 <불꽃>이다. 두 작품은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작품 속에 최고로 강렬한 표현을 담아냈다.⁷⁶⁾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의 <열기 속의 눈>이란 작품에서는 완전한 올 오버보다는 아직도 형태의 중심이 남아 있으나, 채색에 있어서는 인디언의 토tem적 의미가 담긴 장식성과 채색조화를 위한 노력 이외에도 새로운 공간 시도가 엿보이며⁷⁷⁾ 화면 위에서의 행위가 회화의 속도에 따라 폴록 자신이 회화에 빠져 들에 따라 물감 사용의 실제적인 방식이 더욱 표현적이라는 점을 발견해 낸

72) 최희영(2004). op.cit., p.18.

73) 이지현(2007). op.cit., p.30.

74) Ibid.

75) 이지현(2004), op.cit., p.30.

76) 캐럴라인 랜즈너, 고성도역(2014). op.cit., p.35.

77) 이지현(2007). op.cit., p.31.

것이다.⁷⁸⁾

중요한 특징은 폴록이 묘사, 규정, 포괄 같은 선의 전통적 기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⁷⁹⁾

폴록의 작품에서 발산된 에너지는 그의 신체의 움직임과 그의 심리를 거쳐 여과된 에너지이며 자연의 리듬들을 언급하면서, 현대의 미술가들은 내적인 세계를 소통시키며 에너지, 움직임, 그리고 다른 내적인 힘들을 표현한다고 하였다.⁸⁰⁾

78) 찰스 해리슨, 이영철역(1988). op.cit., p.17.

79) 캐럴라인 렌츠너, 고성도역(2014). op.cit., p.40.

80) 김매숙(2004),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에 내재된 오토마티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 그림 11 > 벽화, 1943-1944
 Jackson Pollock
 (출처:데브라 브리커 발켄, 정부정역, 2006, p.9.)



< 그림 12 >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 1946
 Jackson Pollock
 (출처:캐럴라인 렌즈너, 고성도역, 2014, p.36.)



< 그림 13 > 불꽃, 1934~1938
 Jackson Pollock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58162&mobile&cid=46720&categoryId=46867>)
 (검색일: 2016. 10. 02)



< 그림 14 > 열기 속의 눈, 1946
 Jackson Pollock

(출처:<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4813&cid=46720&categoryId=46867&mobile>)
 (검색일: 2016. 10. 2.)

(3) 무의식성

폴록이 초현실주의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것은 금세기 화랑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1943년의 일이다. 폴록은 유럽의 초현실주의에 대해 잡지나 전람회 등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다가 친구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1915~1991)을 통해서 무의식인 오토마틱한 창작기법을 익혔다.⁸¹⁾

폴록은 마더웰을 만나기 전에 이미 헨더슨의 회화를 통한 치료요법에 의해서 무의식한 덧상을 그렸으며 예술에 있어서의 무의식의 세계를 확신하고 있었던 폴록에게 있어서 오토마티즘은 회화 표현상 당연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⁸²⁾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우수한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피카소의 입체주의 화풍, 응과 헨더슨의 정신분석학, 마타의 자동주의 회화 기교, 미로의 환상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시쿠에이로스의 즉흥적 이미지 만들기 등의 영향이 그림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⁸³⁾ (그림 15)

폐기 구겐하임이 운영하던 금세기 미술에서의 제 1회 개인전에 출품되었던 잭슨 폴록의 <그림 16>의 <달의 여인>이나 <그림 17>의 ‘남자와 여자’와 <그림 18>의 ‘속기술의 인물형상’과 같은 상징성을 내포한 작품들은 피카소 적인 분해와 형태⁸⁴⁾의 조형 원리의 절대적인 영향이 드러남과 동시에 심리학적 암시를 강하게 드러내는 즉흥적인 붓질과 같이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은 당시 폴록이 심취하고 있던 무의식적 실험의 영향을 보여준다.⁸⁵⁾

특히 ‘속기술의 인물형상’은 굉장한 호평을 받았는데 몇 개의 필획들은 붓으로 칠한 것이 아니라 튜브에서 직접 짜낸 것으로 실제로 폴록의 의도는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막대기가 사용되었다.⁸⁶⁾

81) 황미경(2002). “Jackson Pollock과 Sam Francis의 드리핑”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82) Ibid.

83) 김광우(1997). op.cit., p.67.

84) 이지현(2007). op.cit., p.27.

85) 김진양(2004). “잭슨 폴록 회화의 행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86) 이지현(2007). op.cit., p.28.



< 그림 15 > 비밀의 수호자들, 1943
 Jackson Pollock
 (출처:캐럴라인 렌즈너, 고성도역, 2014, p.27.)
 (검색일: 2016. 10. 2.)



< 그림 16 > 달의 여인, 1942
 Jackson Pollock
 (출처:<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540146&cid=46720&categoryId=46867>)
 (검색일: 2016. 10. 2.)



< 그림 17 > 남자와 여자, 1942
 Jackson Pollock
 (출처:<http://m.blog.naver.com/internet79/70090852465>)
 (검색일: 2016. 10. 4.)



< 그림 18 > 속기술의 인물 형상, 1942
 Jackson Pollock
 (출처:<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46720&categoryId=46867&docId=1558161>)
 (검색일: 2016. 10. 5.)

3. 바디아트

1) 바디아트의 개념

바디아트(Body Art)는 신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헤어드레싱, 패션 등)들을 포함한 말이며 그것은 주얼리나 기타 장식품을 달기 위한 피어싱(Piercing), 영구적인 문신(Tatto), 상처(Scar)나 또는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페인팅이나 염색을 의미한다.⁸⁷⁾ 또한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어떤 기교를 사용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나 산물이며, 인간의 신체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 분야의 하나이다. 인간의 몸이 예술의 행위자인 동시에 표현의 예술형태라고 할 수 있다.⁸⁸⁾

바디아트는 점점 몸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이며 비활동적인 기존과는 달라지면서 몸의 요소들을 변형과 결합, 제3의 성 표현등 인간의 정신적, 예술적 세계를 관념적인 예술 세계로 표현하고자 하는 뚜렷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⁸⁹⁾

시대적, 역사적 맥락으로서는 사회적 진술과 예술가의 의식을 나타내는 언어로서⁹⁰⁾ 현대의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예술성을 추구하고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 소재와 재료면에서 새로운 시도와 표현을 통하여 조형적 특징을 부각시켜 그 표현영역을 확대하고 있다.⁹¹⁾

87) 대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8.

88) 한명숙(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

89) 김금란(2010). "오브제바디아트의 표현기법에 따른 심리적 반응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

90) 이현주(2003). "윌시미술에 나타난 바디아트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4(2), pp.151-168.

91) 최성진(2014). "몸아트의 조형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따라서 인간의 몸에 시각적인 이미지 표현을 통하여 예술과 인간을 조화시켜 새롭게 창조되는 독창적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⁹²⁾

2) 바디아트의 표현 기법

바디아트의 표현은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방법과 재료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기법으로 등장하였으며 새로운 이미지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현대에 표현되는 바디아트 기법으로는 회화적 표현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 UV 발광 기법, 액션페인팅 기법, 오브제 기법, 디지털 그래픽 표현 기법 등으로 분류 된다.

(1) 회화적 표현 기법

회화적 표현 기법은 바디페인팅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하여 주로 자연물이나 대상을 형상화시켜 주제의 메시지 전달이 쉽다.⁹³⁾

회화적 표현은 인체를 캔버스 삼아 기교나 형식 등의 테크닉에 의존하지 않고 일종의 정서가 반영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문양이나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⁹⁴⁾

<그림 19>와 같이 회화적인 기법은 어떤 대상을 형상화 시키고 정밀묘사 기법, 우연적 기법 등의 요소를 이용하여 주제에 따른 메시지를 전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⁹⁵⁾

92) 김연아(2015).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를로퐁티 몸 현상학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93)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4.

94) 광주영(2015). “바디 페인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95) 김연아(2015). op.cit., p.11.

(2) 에어브러시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은 전용물감과 에어브러시 Gun을 갖추고 공기 압축기인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공기를 압축한 후 건으로 불어내어 물감을 분사하는 방법이다.⁹⁶⁾

이 기법은 손으로 페인팅하는 것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교한 작업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모양의 스텐실을 만들어 피부에 밀착시킨 후 에어브러시를 사용하면 깔끔하고 선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⁹⁷⁾(그림 20) 하지만, 콤프레셔 및 에어브러시 Gun의 장비 구입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장비 사용 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굳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⁹⁸⁾

(3) UV 발광 기법

UV 발광 기법은 UV 물감과 UV 라이트, 블랙라이트를 통해 발광하는 빛으로 표현한 과학적인 페인팅 기법이다. UV 물감은 8가지 색상으로 빨강, 주황, 노랑, 연두, 파랑, 보라, 핑크, 흰색이며 일반 수성물감보다 색이 한정되어 있다.⁹⁹⁾

또한 이 기법은 다른 바디페인팅 작품보다 생동감을 줄 수 있고 화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살린 무대공연이나 쇼 연출에 많이 활용된다.¹⁰⁰⁾

UV 발광 물감은 일반 조명에서는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블랙라이트에서는 <그림 21>과 같이 더욱 선명한 색상을 발광하여 투명한 불빛으로 보이며 물감과 빛을 결합한 기법이다.¹⁰¹⁾

96) 강대영(2003).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p.255.

97)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5.

98)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99) 김미림, 최희자(2011), “UV라이트를 활용한 바디페인팅 시각적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1(2), pp.240-271

100) 강대영(2003). op.cit., p.260.

(4) 액션페인팅 기법

액션페인팅 기법은 우연적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그림 22>와 같이 물감을 던지고 뿌리는 기법이다.¹⁰²⁾

액션페인팅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잭슨 폴록과 윌렘 드 쿠닝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은 채 마르지 않은 물감이 흘러내림으로서 생겨난 우연한 형상은 그림의 표현성을 더 강화시켰다.¹⁰³⁾ 그들은 캔버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점착성 있는 안료를 사용하여 흘리고 뿌리며 나타난 우연적 형상을 만들었다.¹⁰⁴⁾

바다아트에서의 액션페인팅은 예술가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하기보다는 물감이 우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이미지를 위해 작품을 한다.¹⁰⁵⁾

(5) 오브제 기법

오브제 기법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물감 외에도 <그림 23>과 같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을 말한다. ¹⁰⁶⁾

입체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종이, 깃털, 비닐, 스톤, 레이스, 금속, 지물 등의 다양한 재료들은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질감의 표현을 위해 오브제를 많이 사용한다.¹⁰⁷⁾

(6) 디지털 그래픽 표현 기법

101) 박은희(2015). “슈르레알리즘의 미학적 특성을 표현한 바다아트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102) 김연아(2015). op.cit., p.12.

103) 최희영(2004). op.cit., p.8.

104) Ibid.

105) 김현화(1999). op.cit., p.207.

106) 강민정(2006). “패션누드에 나타난 바다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107) 김효진(2015). “사이키델릭의 특성을 응용한 바다아트 제작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디지털 기법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품으로 인체에 간접적으로 페인팅을 시연하는 기법이다.¹⁰⁸⁾

<그림 24>와 같이 디지털 기법은 디자인 과정상에 컴퓨터를 이용한 아이디어 발상 및 표현, 드로잉, 3차원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CAD, CAM의 응용 등 디자인 도구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¹⁰⁹⁾

디지털 기법은 그래픽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 그리는 것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표현기법에 비해 표현의 영역이 넓고 수정 및 보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회성인 바디페인팅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미지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다.¹¹⁰⁾

108) 박선천(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주)한언, p.16.

109) 최성진(2014). op.cit., p.16.

110) 박선천(2008). op.cit., p.16.



< 그림 19 > 회화적 기법
 (출처:http://tour.daegu.go.kr/kor/event/eventDetail.do?eventId=EVENT_000000000000003)
 (검색일:2016. 10. 15.)



< 그림 20 > 에어브러시 기법
 (출처:<http://photo.naver.com/view/2008082214491090011>)
 (검색일:2016. 10. 15.)



< 그림 21 > UV 발광 기법
 (출처:<http://blog.naver.com/h3133712/130075943926>)
 (검색일:2016. 10. 16.)



< 그림 22 > 액션 페인팅 기법
 (출처:http://bbs.hydratation.co.kr/ttboard/ttboard.cgi?category=&search_method=&search_mode=&search_word=&act=view&code=113&bname=NEWPRODUCT&page=2&SearchBlock=1)
 (검색일:2016. 10. 17.)



< 그림 23 > 오브제 기법
(출처: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 de.asp?uid=musoyou0219&folder=5&list_id=13466109)
(검색일:2016. 10. 17.)



< 그림 24 > 디지털 그래픽 표현 기법
(출처:<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phictist&logNo=50033550208>)
(검색일:2016. 10. 18.)

Ⅲ. 작품제작

1. 제작의도 및 디자인 계획

본 연구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을 이용해 잭슨 폴록 작품 6점을 활용하여 바디아트를 제작한다.

작품의 디자인은 추상표현주의의 ‘우연성’, ‘평면성’, ‘무의식성’ 세 가지 특성을 이용해 ‘우연성’을 표현한 작품 2점, ‘평면성’을 표현한 작품 2점, ‘무의식성’을 표현한 작품 2점을 선정후 재해석하여 바디아트 작품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작품 I은 잭슨 폴록 작품 중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인 ‘우연성’이 나타나있는 <다섯 길 깊이>를 모티브로 하여 응용하고 바디아트를 제작하고자 한다.

막대기나 붓으로 물감을 마치 춤을 추듯이 돌아다니며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요소들을 표현하고자 뿌리고 휘저어 회오리치는 선을 창조하여 이 요소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목적으로 디자인하고자 한다.

작품 II는 원작인 <넘버 32, 1950>의 불규칙하고 굵고 가는 다양한 선의 느낌으로 바디를 지배하는 느낌의 물을 뿌린 듯한 선이 전체에 표현될 때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III은 잭슨 폴록 작품 중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인 ‘평면성’이 나타나있는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고 바디아트를 제작하고 캔버스 내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2차원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에 모티브를 받아 이 작품에서 나타난 색채의 선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IV는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작품 속에 최고로 작품

속의 붓질 하나하나 그대로에 강렬함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아내어 불꽃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V는 잭슨 폴록 작품 중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인 ‘무의식성’이 나타나 있는 <달의 여인>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에 필기체의 형상을 무의식적인 느낌으로 즉흥적이게 표현하여 바디아트를 제작하고자 한다.

작품 VI은 <속기술의 인물 형상>의 비선형적 선 구성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나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변화에서 오는 피카소 적인 분해와 형태들을 표현해 나가고자 한다.

추상표현주의의 잭슨 폴록 작품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계획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디자인 계획

특성	작품	모티브	디자인 스케치	표현 기법	색채
우연성	작품 I			드리핑	
	작품 II			드리핑	
평면성	작품 III			올 오버 페인팅	
	작품 IV			올 오버 페인팅	
무의식성	작품 V			오토마티즘	
	작품 VI			오토마티즘	

2. 작품제작

1) 작품 I

(1) 디자인 의도

작품 I 은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우연성을 표현한 잭슨 폴록의 <다섯 길 깊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우연성이란 작품에서 작가가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흘러내린 물감과 뿌리기 등을 이용해 작품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작품은 <그림 25>와 같이 신비로운 대양의 깊이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 막대기나 붓으로 물감을 마치 춤을 추듯이 돌아다니며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요소들을 표현하고자 뿌리고 휘저어 회오리치는 선을 창조하였는데 이 요소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목적으로 디자인 하였다.

전체적으로 시각적 무게감을 주면서 음산함 분위기의 느낌을 주고 간결한 형태와 잭슨 폴록이 사랑했던 스타일의 전체성과 통합성을 상징하는 회화를 나타내었다.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다.

(2) 제작 방법

작품 I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몸 전체에 큰브러쉬를 사용하여 블랙 수성물감으로 꼼꼼히 채색한다.
- ② 컬러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매트하게 만들어 준다.
- ③ 옐로우, 오렌지, 옐로우그린, 핑크, 레드 총 다섯가지 UV 컬러로 가로, 세로, 위, 아래, 사선방향으로 브러쉬나 막대기로 뿌려준다.
- ④ 바디 곡선에 따라 흘러 내리도록 내버려 둔다.
- ⑤ 다양한 굵기와 모양이 나오게 제작의도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더 뿌려주며 마무리 한다.
- ⑥ 사진을 찍을 때 블랙라이트를 켜서 UV 물감이 잘 나오도록 한다.

<표 2> 작품 I의 디자인 계획

디자인 이미지	
	
표현 특성	우연성
표현 요소	드리핑
표현 기법	UV 발광 기법, 액션페인팅
재 료	수성물감, 네온물감, 붓, 막대기
색 상 배 색	



<그림 25> 작품 I

2) 작품 II

(1) 디자인 의도

작품 II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우연성을 표현한 잭슨 폴록의 작품 <넘버 32, 1950>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넘버 32, 1950>은 잭슨 폴록이 1950년 무렵 재료를 다루는 방식에 골몰했으며 ‘고전기’라 할 수 있는 시대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

폴록은 작품 작업 과정에서 캔버스를 눕혀놓고 그 주위를 춤을 추듯 돌아다니며 느리게 움직였다가 점차 속도를 내며 물감을 캔버스에 뿌렸고 돌아다니면서 물감을 뿌리고 흘린 자국은 우연적인 독창적 표현방법에 유일하다.

본 연구자는 <그림 26>을 원작의 불규칙하고 굵고 가는 다양한 선의 느낌으로 바디를 지배하는 느낌의 물을 뿌린 듯한 선이 전체에 표현될 때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현하였으며, 그와 수반하여 우연적인 효과와 선적인 표현방법 뿐만 아니라 점까지도 자연스럽게 떨어진 느낌으로 나타내었다.

얼굴 쪽으로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면 쓴 느낌의 그림을 그려 물감을 흘려 떨어뜨려 얼굴부터 바디까지 이어지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4>과 같다.

(2) 제작 방법

작품 II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얼굴과 바디를 베이스 컬러인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여 꼼꼼히 곁이 남 지않게 채색한다.
- ② 그레이 컬러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매트하게 만들어 준다.
- ③ 얼굴에 브러쉬를 이용해 가면모양의 그림을 그려주고 아래 부분에 물감을 떨어뜨려 흘러내려오게 한다.
- ④ 얼굴에 그린 가면 형태가 선명하게 표현 될 수 있도록 블랙 컬러로 선을 그어준다.
- ⑤ 다양한 크기의 브러쉬에 그레이 컬러의 농도를 조금씩 다르게 묻혀 바디에 가로, 세로, 위, 아래, 사선방향으로 뿌려준다.
- ⑥ 바디 곡선에 따라 흘러 내리도록 내버려 두며 마무리 한다.

<표 4> 작품 II의 디자인 계획

디자인 이미지	
	
표현 특성	우연성
표현 요소	드리핑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액션페인팅
재료	수성물감, 붓
색상 배색	



<그림 26> 작품 II

3) 작품 Ⅲ

(1) 디자인 의도

작품 Ⅲ은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평면성을 표현한 잭슨 폴록의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서 폴록은 붓질의 정력적이고 풍성하고 지속적인 운동 효과를 발견했는데, 붓질을 할 때 용암 같은 두께와 질감으로 바르고 뿌리고 채색하거나 작품 표면에 지속적으로 연결된 선으로 평면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자는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과 같은 평면성에서 보여지는 캔버스 내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2차원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에 모티브를 받았다. 이 작품에서 나타난 색채의 선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불연속, 불규칙적인 선의 형태를 반복하여 신체에 나타내고 분해하고 해체시켜 과장하여 늘리고 단조롭고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동적인 리듬감 같은 선을 그어 더욱 상징적 형체를 돋보이게 표현하였다.

작품 Ⅲ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5>와 같다.

(2) 제작 방법

작품 Ⅲ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메인 컬러이자 가장 연한 옐로우 컬러부터 전체적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표현으로 평면적인 느낌의 선을 다양한 굵기로 그려준다.



② 옐로우그린, 핑크, 주황, 레드 컬러의 순서대로 다양한 평면적인 느낌의 선을 다양한 굵기로 그려준다.

③ 얼굴은 화이트 컬러로 칠해주고 그 위에 핑크 컬러를 사용하여 목부분에서 볼부분까지 선을 그려준다.

④ 블랙 컬러를 사용하여 다른 컬러들 사이사이에 다양한 선의 굵기의 곡선으로 그려준다.

⑤ 마지막으로 모델에게 속눈썹과 레드립을 칠한뒤 마무리 한다.

<표 5> 작품 III의 디자인 계획

디자인 이미지	
	
표현 특성	평면성
표현 요소	올 오버 페인팅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재 료	수성물감, 붓
색 상 배 색	



<그림 27> 작품 Ⅲ

4) 작품 IV

(1) 디자인 의도

작품 IV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평면성을 표현한 잭슨 폴록의 <불꽃>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평면성은 평면 위의 최단순의 구조를 가지며 색채와 형상이 평면인 표현을 말한다.

<그림 28>은 곡선적인 운동성과 명암의 대비 벤턴의 표현주의적 명암법과 19세기 상징주의 효과로 몸부림치는 불꽃이 너무 두껍고 억세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불꽃은 원심성을 띤 전면 균질적 구성 평면 속에서 사물과 배경을 융합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선들로 짜여진 그물망으로 구축함으로서 형상과 바탕 사이의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평면성을 시도하였으며, 새로운 종류의 시각적인 회화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작품 속에 최고로 작품 속의 붓질 하나하나 그대로에 강렬함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아내어 불꽃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6>와 같다

(2) 제작 방법

작품Ⅳ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이트 펜슬로 전체적인 스케치에 들어간다.
- ② 스케치를 할때 평면적인 느낌의 굵은 선이 위로 타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준다.
- ③ 레드 컬러에 물을 조금 부어 색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매트하게 만들어 주고 스케치한 부분에 맞게 채색한다.
- ④ 블랙 컬러에 물을 조금 부어 색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매트하게 만들어 주고, 레드 계열을 뺀 나머지 부분에 블랙 컬러를 채색한다.
- ⑤ 블랙 컬러를 사용해 각진 선의 느낌으로 표현한다.
- ⑥ 레드 컬러 사이사이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여 명암을 넣어주며 마무리한다.

<표 6> 작품 IV의 디자인 계획

디자인 이미지	
	
표현 특성	평면성
표현 요소	올 오버 페인팅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재 료	수성물감, 붓
색 상 배 색	



<그림 28> 작품 IV

5) 작품 V

(1) 디자인 의도

작품 V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무의식성을 표현한 잭슨 폴록의 <달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달의 여인>에서 달은 여성을 상징하는데 달과 여자를 한꺼번에 표현함은 그의 내면 속에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하게 하며, 잭슨 폴록은 사랑의 활활감을 작품 속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자는 원시세계의 신화적인 느낌의 요소들을 넣어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복잡하고 압축된 느낌으로 캔버스의 양옆에 불연속적 형상을 균형 있게 배치 한뒤, 양쪽이 혼돈 속에서 직립해 있는 형상에 필기체 글자 같은 피상적인 무늬를 더해 무언가를 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비선형적 선의 구성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나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변화에서 오는 피카소 적인 분해와 형태들을 표현해 나갔다.

신체의 중앙 시점인 심장을 중심으로 피카소적인 분해와 형태를 나타내어 불규칙한 굵고 가는 선이 뻗어 나가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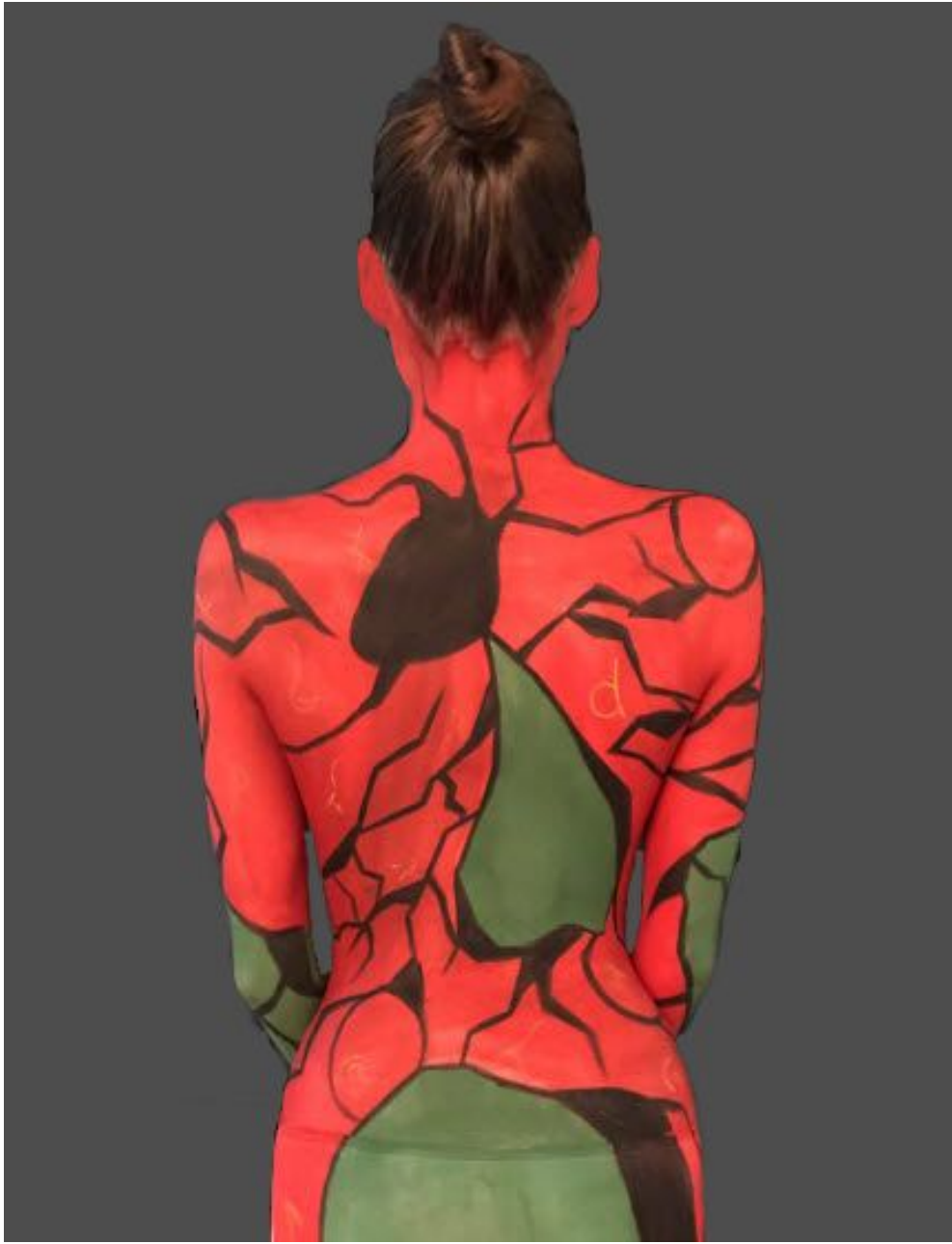
(2) 제작 방법

작품 V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이트 펜슬로 전체적인 스케치에 들어간다.
- ② 레드 컬러를 에어브러시에 넣고 골고루 전체적으로 뿌려준다.
- ③ 그린 컬러에 물을 조금 부어 색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매트하게 만들어 주고 스케치한 부분에 맞게 채색한다.
- ④ 블랙 컬러로 선을 다양한 굵기로 선표현을 해준다.
- ⑤ 옐로우 컬러를 이용해 필기체 글자 같은 무늬를 부분 부분 그려주며 마무리 한다.

<표 7> 작품 V의 디자인 계획

디자인 이미지	
	
표현 특성	무의식성
표현 요소	오토마티즘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에어브러쉬 기법
재료	수성물감, 붓, 건, 컴프레서
색상 배색	



<그림 29> 작품 V

5) 작품 VI

(1) 디자인 의도

작품 VI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무의식성을 표현한 잭슨 폴록의 <속기술의 인물 형상>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속기술의 인물 형상>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용되어진 무의식성의 오토마틱한 형태이다.

누드화로 보이는 혼성적인 주인공에는 폴록의 과감하면서도 화산과도 같은 내면의 충동이 다른 어떤 형상보다도 깊이 반영되어 있으며 침묵과도 같은 무거움이 사라지고 수다스러운 가벼움이 나타난다.

<그림 30>은 폭발적이고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작품 속에 뚜렷이 녹아 있도록 하였다.

신화적이고 원시적인 모티브로 아메리카 원주민 예술을 떠오르게 하는 주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또한 연속된 형태의 신체에 흘러가는 듯한 활달한 분위기의 느낌을 곡선 형태로 나타내었고, 크고 작은 로마자와 필기체 글자 같은 피상적인 무늬를 그려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날렵한 즉흥성을 표현하였다.


작품V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8>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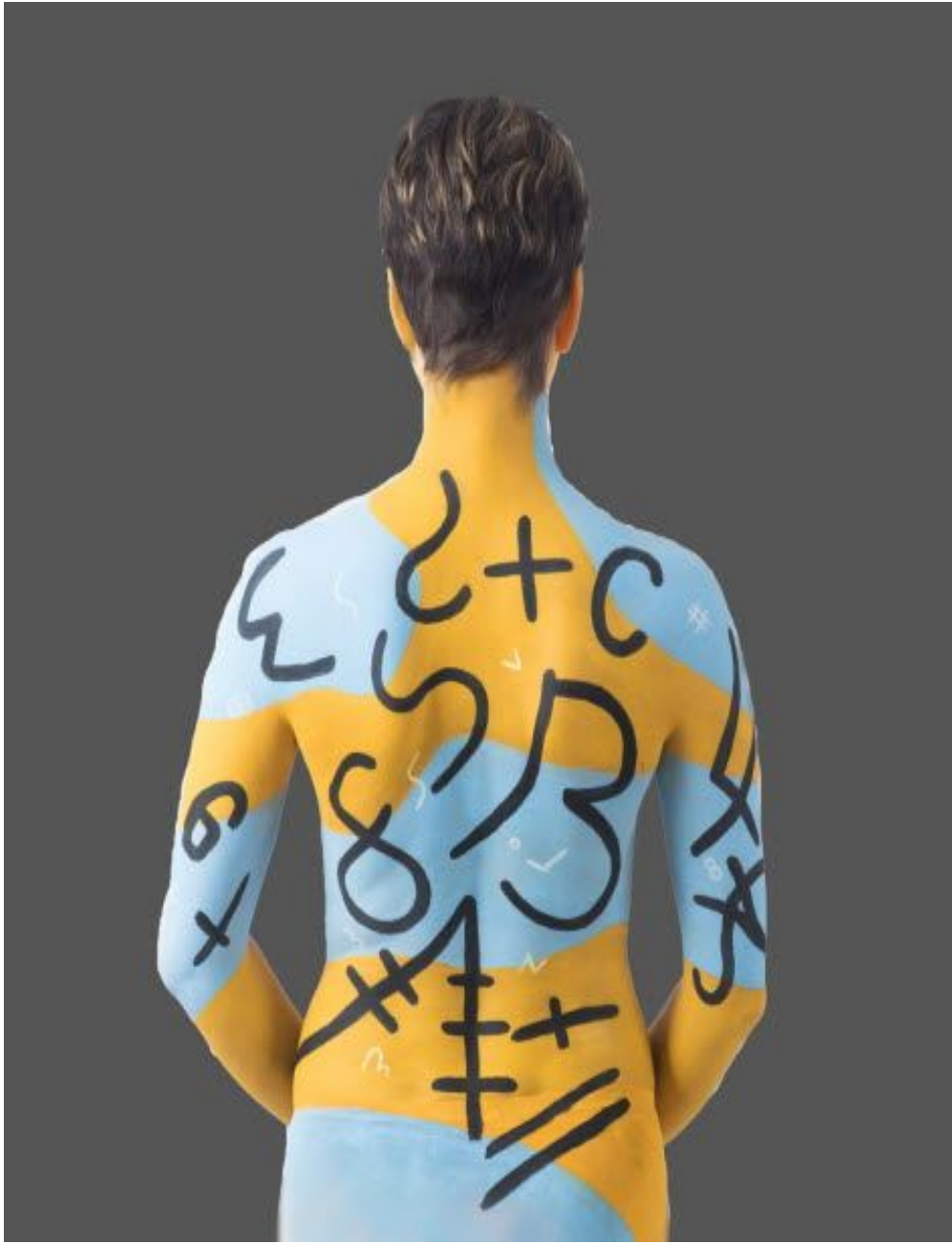
(2) 제작 방법

작품 VI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이트 펜슬로 전체적인 스케치에 한다.
- ② 노랑색 컬러에 물을 조금 부어 색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매트하게 만들어 주고 스케치한 부분에 맞게 선명하게 채색한다
- ③ 블루 컬러에 물을 조금 부어 색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매트하게 만들어 주고 스케치한 부분에 맞게 선명하게 채색한다
- ④ 블랙 컬러를 사용하여 필기체 글자 같은 피상적인 무늬를 부드러운 라운드체로 크게 굵게 그려준다.
- ⑤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여 필기체 글자 같은 피상적인 무늬를 부드러운 라운드체로 작고 얇게 그려주며 마무리 한다.

<표 8> 작품 VI의 디자인 계획

디자인 이미지	
	
표현 특성	무의식성
표현 요소	오토마티즘
표현 기법	회화적 기법
재료	수성물감, 붓
색상 배색	



<그림 30> 작품 VI

IV. 결 론

바디아트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현대의 종합예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분야와 접목하여 새로운 기법을 탄생시키고 기발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역사 속 미술 사조를 바디아트에 접목한 다양한 작품들이 보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잭슨 폴록의 작품을 응용하여 추상표현주의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하여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유연성, 평면성, 무의식성, 공간성, 시간성으로 고찰하여, 그 중 잭슨 폴록의 작품 6점을 유연성, 평면성, 무의식성으로 세가지로 나누어 분류 후 특성을 재해석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다양한 바디아트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은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유연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다섯 길 깊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막대기나 붓으로 물감을 마치 춤을 추듯이 돌아다니며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요소들을 표현하고자 뿌리고 휘저어 회오리치는 선을 창조하였는데 이 요소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목적으로 디자인 하며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흘러내린 물감과 뿌리기 등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작품 II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유연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넘버 32, 1950>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물을 뿌린 듯한 선이 그어질 때 그와 수반하여 우연적인 효과를 주며 이때 선적인 표현방법 뿐만 아니라 점까지도 자연스럽게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평면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아른아른 빛나는 물질>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표면

에 지속적으로 연결된 선으로 평면적인 느낌과 색채의 선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컬러의 물감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IV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평면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불꽃>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소재에서 벗어나 작품 속에 붓질 하나하나 그대로에 강렬함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아내어 불꽃처럼 표현하였다.

작품 V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무의식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달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필기체 글자 같은 피상적인 무늬를 더해 무언가를 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피카소적인 분해와 형태들을 표현해 나갔다.

작품 VI는 추상표현주의의 특성 중 무의식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잭슨 폴록의 <속기술의 인물 형상>이라는 작품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신화적이고 원시적인 모티브로 아메리카 원주민 예술을 떠오르게 하는 주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작품을 회화적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추상표현주의가 가진 특성과 인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바디아트 예술범위의 폭넓은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회화적 작품의 소재를 바디아트에 접목함으로써 형태의 다양한 바디아트 연구와, 새로운 기법과 미술사조와의 조합 등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장대영(2003).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 장민정(2006). “패션누드에 나타난 바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남구(1994). “추상회화에 나타난 공간성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영희(2007).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우(1997). “폴록과 친구들”, 서울: 미술문화.
- 김현화(1999). “20세기 미술사”, 서울: 한길 아트.
- 김정미(2010). “추상표현주의에 내재된 욕망의 무의식적 표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2003). “콜라주와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금란(2010). “오브제바디아트의 표현기법에 따른 심리적 반응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진(2015). “사이키델릭의 특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제작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묘(2009).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나타난 표현기법을 응용한 패션트렌스 아이템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아(2015). “바디아트퍼포먼스와 메를로퐁티 몸 현상학의 상호작용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자(2005).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있어서 자연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03). “흔적의 재현을 통한 회화의 시간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15). “시간성을 통한 현상의 표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매숙(2004).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에 내재된 오토마티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배(2005). “드로잉을 통한 우연성과 자율적인 표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락(2016). “시간성 표현방법을 적용한 근대건축물의 리노베이션 계획안”,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양(2004). “잭슨 폴록 회화의 행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주영(2015). “바디 페인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선정(2004). “추상표현주의 액션페인팅의 우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데브라 브리커 발켄, 정무정역(2006). “추상표현주의”, 파주: 열화당.
- 데이비드 파이퍼, 강민기역(1995). “미술사의 이해:3”, 서울: 시공사.
- 루돌프 아르하임, 김춘일역(2003). “미술과 시지각”, 서울: 홍성사.
- 매슈게일, 오진경역(1998). “다다와 초현실주의”, 서울: 한길아트.
- 민병우(2004). “추상표현주의 미술에 기초한 스크래칭 애니메이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천(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주)한언.
- 박자영(2004). “미국 추상표현주의 오토마티즘의 제 경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정(2011). “알베르토 자코메티 작품의 공간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고은(2008). “추상표현주의의 우연성과 표현특성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2015). “*쉬르레알리즘의 미학적 특성을 표현한 바디아트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기혜(2009).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숙(2006). “*추상표현주의의 표현방법에 관한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현(2003). “*우연성을 활용한 텍스처와 추상형태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가월(2016). “*우연성의 재해석을 통한 자아탐색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07). “*잭슨 폴록 회화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03). “*피카소의 회화를 응용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에른스트 고프리치, 백기수역(1985), “*예술과 환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지현(2004).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2000). “*평면적 이미지를 통한 회화공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옥(2006). “*잭슨 폴록과 본인 작품의 추상표현주의적인 회화의 고찰*”,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선(2011).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진(2012). “*현대미술에 나타난 우연성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현(2007). “잭슨 폴록 회화 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라(2005). “현대 미술에 있어서 우연성 표현 방법에 대한 조형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진(2014). “오페라의 조형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영(2004). “액션페인팅에 나타난 우연적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정(2000). “Graphic design에서의 평면성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정(2012). “뒤틀림으로 고찰한 20세기 이후 평면성 표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인(2005). “현대회화의 우연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찰스 해리슨, 이영철역(1988). “추상표현주의”, 서울: 열화당.
- 최동신, 최호천(2006). “입체, 공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안그라픽스.
- 캐럴라인 랜즈너, 고성도역(2014). “잭슨 폴록”,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태동숙(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툼 울프, 박순철역(2003). “현대미술의 상상”, 서울: 아트북스.
- 후지에다 테루오, 박용숙역(1985). “잭슨 폴록”, 서울: 열화당.
- 하상희(2014). “중첩구조로 표현된 이중적 시간의 시각화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정희(2004). “회화기법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한명숙(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미경(2002). “*Jackson Poolock*과 *Sam Francis*의 드리핑”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림, 최희자(2011), “UV라이팅을 활용한 바디페인팅 시각적 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2), pp.240-271.

이현주(2003). “원시미술에 나타난 바디아트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4*(2), pp.151-
168.

네이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2454&cid=42635&categoryId=42635> (검색일:2016. 09. 10.)

네이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4314&cid=42635&categoryId=42635> (검색일:2016. 09. 13.)

네이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4314&cid=42635&categoryId=42635> (검색일:2016. 09. 14.)

네이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016&cid=40942&categoryId=31531>, (검색일:2016. 09. 17.)

네이버.<http://cafe.naver.com/soorisam/1051> (검색일:2016. 09. 17.)

중부 매일. <http://m.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670> (검색일:2016. 09.
18.)

아시아경제.<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0813442527526> (검색일:2016. 09. 18.)

네이버.<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58661&cid=40942&categoryId=34393> (검색일:2016. 9. 20.)

네이버.<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540146&cid=46720&categoryId=46867> (검색일:2016. 10. 2.)

네이버.<http://m.blog.naver.com/internet79/70090852465> (검색일: 2016. 10. 4.)

네이버.<http://m.terms.naver.com/entry.nhn?cid=46720&categoryId=46867&docId=1558161> (검색일:2016. 10. 5.)

대구관광안내. http://tour.daegu.go.kr/kor/event/eventDetail.do?eventId=EVENT_00000000000003 (검색일:2016. 10. 15)

네이버.<http://photo.naver.com/view/2008082214491090011> (검색일:2016. 10. 15)

네이버.<http://blog.naver.com/h3133712/130075943926> (검색일:2016. 10. 16)

월드메이커업.http://bbs.hydration.co.kr/ttboard/ttboard.cgi?category=&search_method=&search_mode=&search_word=&act=view&code=113&bname=NEWPRODUCT&page=2&SearchBlock=1 (검색일:2016. 10. 17)

중앙일보.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musoyou0219&folder=5&list_id=13466109 (검색일:2016. 10. 17)

네이버.<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phictist&logNo=50033550208> (검색일:2016. 10. 18)

ABSTRACT

Study on Body Art Works Inspired by Jackson

Pollock's Works in Abstract Expressionism

Choi, Min Joo

Make-up & Special Effect Make-up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People in the field of cosmetics and beauty care keep steady progress through new attempts to serve some atavistic need in all of people. Particularly body art is one of the formative arts which develops a commercial art in the 21th century such as performance, advertisement and so on to broaden the areas and to be popularized.

Works of body art are created by diverse themes and application methods. And body art keeps trying to communicate with other fields to create new works which make artistic affluence.

The study created body art works inspired by six Jackson Pollock's works. body art works are made by characteristics of abstract expression assorted by contingency, flatness, unconsciousness and by using various expressive techniques to represent beauty of painting

works.

Work I expressed contingency in the characteristics of abstract expression inspired by a Jackson Pollock's work, <Full Fathom Five> which makes lots of whirlwind lines sprayed and stirred to express nothing to be arranged with sticks or brushes dancing by paints. The works are created by this kinds of techniques which are paint streams and paint sprays by chance.

Work II expressed contingency in the characteristics of abstract expression inspired by a Jackson Pollock's work, <Number-32, 1950>. The work made sprayed or poured lines come into sight and spots drop by chance.

Work III expressed flatness in the characteristics of abstract expression inspired by a Jackson Pollock's work, <Shimmering Substance>. The work is made by variety of paints with flat feeling and colorful lines.

Work IV expressed flatness in the characteristics of abstract expression inspired by a Jackson Pollock's work, <The Flame> which made every single brushstroke to express intensity and explosive energy.

Work V expressed unconsciousness in the characteristics of abstract expression inspired by a Jackson Pollock's work, <Moon Woman>. The work expressed Picasso-like disassemble and form which adds superficial pattern such as cursive script.

Work VI expressed unconsciousness in the characteristics of abstract expression inspired by a Jackson Pollock's work, <Stenographic Figure> which has a theme of native american art and represent something that comes to mind with freely expressive techniques.

On this wise, according as the characteristics of abstract expression are applied to works of body art, new body art works can be created in diverse designs that mean being free from formalities. So the study looks forward to expansion of artistry and expression scale in national body art field.